

새미래, 미래연합에 “창당대회 함께하길”

“27일 열릴 광주지역 창당대회부터 기대” 밝혀 “2월초 통합 물꼬 트면 하순부터 신당 바람 불 것”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진행 중인 새로운미래(새미래)가 연대가 기정사실화된 '미래연합(미래연)'을 향해 오는 27일 광주지역 창당대회부터는 함께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초 창당을 마친 뒤 통합 물꼬를 트면 2월 중하순부터는 신당 바람이 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미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 번째 창준위 회의를 진행했다.

이석현 창준위장은 “미래연합과의 협력 관계가 의미있게 진전되고 있

다”며 “25일 경북도당과 부산시당, 27일에는 광주시당과 전북도당대회 개최에 이어 28일에는 경기도, 29일에는 충북 순서로 6곳 시도당 창당대회를 연다. 25일은 따로 하더라도 27일 광주시당 창당대회부터는 가급적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미래와 미래연합이 하나의 창당을 한다면 시도당대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다”라며 “그런 비효율이자 노력의 분산이다. 창당대회를 함께 열어서 두 세력의 화학적 결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태섭·조성주 공동대표의 새로운선택, 양향자 한국희망까지 모두 하나 되고 나아가 개혁신당과의 합당을 꾀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호 3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단독으로도 할 수 있지만 거대 양당이 없어서 제3지대 모든 세력이 하나로 뭉쳐 단일대오를 이루면 국민에게 더 큰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실제 연구서를 분석해보면 지지도가 아직 크게 뛰지 않았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고요하지만 2월 초 창당대회를 하고, 설 연휴가 지나 하순경부터는 신당 바람이 불 거라고 확신한다”며 “우리가 걷는 길이 가시밭길이지만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보

냈다. 원내에서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 신정현 창준위장이 “민주당이 선거 유불리를 따지느라 당론조차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립형 회귀 검토한다더니 준연동형으로 나가고, 어제는 권역별 병립형 고민한다고 했다”며 “좌회전 감쪽이 쳐놓고 우회전하고, 우회전 감쪽이 쳐고 좌회전해 수개월동안 정치를 혼탁하게 만들고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이마저도 총선에서 양대 정당 이외에는 단 한 석도 주지 않겠다는 않은 폼소라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비례대표제를 인질 삼아 정치 제도의 퇴행을 주도한다. 망국적 정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뉴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선거연수회를 가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성공적 관리 위해

전북선관위, 주요업무계획 회의·선거연수회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4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 및 선거연수회를 가졌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권자의 뜻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한 투·개표절차 운영과 고도화된 사이버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진 선거연수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개표과정에 도입할 수검표 절차를 시연했다. 수검표는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투표지분류기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를 통한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개표의 한 과정이다. 절차가 추가되어 개표종료시간이 지난 선거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개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습하고, 열띤 토의를 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위원회의 헌법적 책무인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희망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한국희망과 여러차례 교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양측 입장에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의·의결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가 24일 제 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익산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시장 주요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시민 체감형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5건의 동인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최중오 의장은 “갑진년(甲辰年) 첫 임시회기 동안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의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2024년 푸른 용의 활기찬 기운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순덕 의원이 ‘가족센터의 역할 및 인식 강화 필요성’, 손진영 의원이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동키보드 대책 마련’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전북연구원이 지난 2023년 업무협약 후 처음으로 추진한 공동연구사업 결과 발표 및 지역 환경현안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건환경연구원, 전북연구원과 공동연구사업 세미나 개최

2024년도 신규 공동연구사업 추진계획 협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과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이 지난 2023년 업무협약 후 처음으로 추진한 공동연구사업 결과 발표 및 지역 환경현안문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동연구사업 결과 발표 및 양 기관의 환경전문가들과 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현안문제 해

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지난 2023년 1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관별 환경전문가들을 구성해 1년간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했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 옥정호 내 인공습지공원 조성’을 위한 수질현황 조사 및 조성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결과발표 및 도내 환경문

제 해결방안을 위해 양 기관의 협업업무 모색 등 다양한 토의가 이뤄졌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부각해 상호 신뢰성 있고 내실있는 공동연구사업 결과물이 나왔다”며, “올해도 기관간 전문성을 협업해 새롭게 시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문제 해결 및 정책 제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간담회·20건 부의안건 상정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4년 제261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24일 열린 본회의에는 국립 수중고교학사터 건립 추진 촉구 건의안을 가결하여 국립 수중고교학사터 건립사업 즉각 추진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시의회는 24일부터 2월 5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아의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우민 의원), ‘군산시 장애인 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송미숙 의원), ‘군산시 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어르신 활동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에너지 기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개방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군산시 방수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등 20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4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연화·김영자·김경구·윤세자·한경봉·서은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은식 의원의 건의안, 한경봉 의원의 시장질문이 있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해야”

한경봉 군산시의원, 시정질문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 결과’ 관련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4일 제 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장질문을 통해 군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 의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2022년 2월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군산시 직원 1,632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조치 사항과 주관식 문항에 담긴 632명 직원들의 답변에 대한 군산시의견에 대해 집중했다.

한경봉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은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군산시도 2022년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2022년 2월에 청렴컨설팅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 직원 대상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632명의 주관식 문항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먼저 주관식 문항 ‘우리 기관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직원 답변으로 전직 국·과장의 업무 개입, 국과장 모시는 날 삼급자 휴가비 및 명절비 챙기기, 삼급자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마련, 시장과 관련된 업체의 수의계약 조건 조정,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추진으로 부실사업 초래 및 예산낭비 우려, 승진인사의 무원칙 및 방침 부재 등과 2022년 3월 29일에 이 자료를 가지고 청렴컨설팅 자문회의 후 조치를 했는지를 물었다.

이어 주관식 문항 ‘우리 시의 청렴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부패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 직원들이 작성한 부패 원인은 선출직 차치단체장·지방의원·고위직 공무원에게 있다고 판단되지만 진행 중인 사책은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책, 청렴하지 않고 감질하는 사람들의 인 사상 이득, 부패 및 낮은 관행 유도 근절을 위한 5급 이상 교육, 익명신고 시스템 레드투를 신고자에 대한 보호 약에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이 있다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공약 달성이 가능한 지를 물으며 군산시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을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이준석-양향자 신당 ‘합당’

개혁신당·한국희망 합당 선언… “과학기술 선도국가 건너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희망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을 기점으로 개혁신당과 한국희망은 나란히 대한민국 정치개혁과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한국희망과 여러차례 교류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며 “특히 과학기술 부문과 관련해 양측 입장에

론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한다”며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과학기술 부문 발전을 위한 3대 미래 과약으로 △첨단산업 벨트 K-네트워크 건설 △생애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제시했다. /뉴스

이상직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받아

‘티이스타젯 배임 혐의’… 박석호 대표는 집행유예

티이스타젯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석호 티이스타젯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원을 티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티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엘에스에게 넘기고 28억2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박 대표가 공모해 티이스타젯을 설립, 이스타항공에 큰 피해를 끼쳐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티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며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

하고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해외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항공사 설립 계획을 보고받고도 이 계획이 항공업계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예상 수익이 부풀려졌거나 필요 비용이 축소된 게 아닌지 조사하려는 노력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당사 시급한 현안에 대처해야 할 임직원들은 불필요한 역할까지 해야 했다. 다만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활동·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스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포럼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논의

행정안전부는 한국행정연구원과 오는 25일 오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과 관련된 정책과제와 정부 혁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발표와 토론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25일 오후 3~5시 생중계한다. /뉴스